

10월 28~31일 열리는 '아트광주 21' 사전행사인 '미술의 숲' 전시가 7월 9일까지 관선재 갤러리에서 열린다.



10월 개최 '아트광주 21' 화랑 중심으로

지역 작가 부스 폐지, 사전 행사 강화.
광주시가 주최하는 올 '아트광주 21'의 두 가지 키워드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되던 작가들의 개인부스를 폐지하고 화랑 중심으로 운영되며 작가들의 작품을 미리 만나는 프리뷰 전시 등 본전시 열리는 10월까지 다채로운 행사로 미술애호가를 찾아가고 있다.

한국예술진흥회가 주관하고 윤익 미술문화기획자가 총감독으로 선임된 올해 행사의 출발은 22일 예술의 거리 관선재 갤러리에서 시작된 '미술의 숲: 프리뷰-아트광주21' (7월9일까지)이다. 지역 작가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아트마켓으로 전시에는 강동호·정선·최순임 작가 등 27명의 작품이 나왔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작가들에게 돌아가며 오는 10월까지 모두 4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최근 들어 미술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다. 코로나 19로 주춤하던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지난달 열린 부산아트페어는 350억원을 판매, 역대 최대 판매, 최대 관객을 기록하기도 했다. 여기에 MZ 세대들까지 미술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아트테크'라는 말이 나오는 등 미술품 구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10월28일부터 3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

2015년부터 운영 작가부스 폐지 프리뷰 등 부대행사 상시 진행 7월9일까지 관선재 갤러리 전시

터에서 열리는 '아트광주 21' 본전시 행사는 이런 분위기를 감안, 변화를 꾀한다. 80여개에 달했던 지역 작가들의 개인 부스를 없애는 대신 국내외 갤러리를 대거 유치, 화랑 중심으로 아트페어를 진행한다. 작가 개인부스는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갤러리들과 이해관계가 부딪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판로가 마땅치 않은 지역작가들에게 판매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긍정적 인 면도 있어 이번에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화랑 중심 페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지 눈길이 쏠린다.

또 지난해 코로나 19로 아트페어 행사가 온라인으로 대체돼 현장 행사가 없었던 만큼 잠재 수요가 얼마나 직접적인 판매로 이어질 지도 관심사다.

사무국은 화랑과 연계하지 못한 지역 작가들을 위해서는 아트페어 사무국이 공모로 작가를 선정하고 자체 부스를 운영, 다채로운 기획전을 통해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한다는 복안이다.

오는 7월9일까지 참가갤러리와 참여작가를 모집 중인 사무국은 국내외 갤러리 부스 82개(국회 15개)와 아트 광주 기획전 자체 부스 18개를 운영, 100여명의 작품 400여점을 선보인다. 기획전은 명품작가전, 블루칩 작가전, 라이징 스타전, 마음의 선물전, 행복한 그림존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며 예술의 거리 프로젝트, 대인예술시장 활성화 사업,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등 지역 문화예술행사와 연계한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사전 행사는 코로나 19로 행사가 원활히 열리지 못할 것을 대비해 10월까지 꾸준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리뷰' 전시와 함께 아트 광주 21 참여 갤러리를 순회하는 '프레 페어'가 5차례 열리며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아트마켓 전시 (10회), 문화공간-기업 등과 연계한 미술문화좌좌(8회), 미술 레지던시 작가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윤익 총감독은 "미술시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열리는 올해 아트 광주 행사를 기점으로 지속가능한 미술문화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며 "기존의 구매자 뿐 아니라 젊은 세대 등 초보 콜렉터들도 적극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모차르트 '코지 판 투테'

빛소리오페라단 26일 광주아트홀
열렬히 사랑해 결혼까지 약속한 약혼녀의 변심을 다룬 모차르트의 후기 오페라 '코지 판 투테' (사진)가 무대에 오른다.
사단법인 빛소리오페라단은 26일 오후 3시 광주아트홀에서 '코지 판 투테'를 공연한다.
1999년 창단한 빛소리오페라단은 지금까지 오페라 '마술피리', '버섯피자', 창작오페라 '꽃지어 꽃 피고', '학동엄마' 등 다양한 작품으로 관객과 만나왔다. 정기공연을 비롯해 순회 및 초청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폭 넓은 음악문화 향유의 기회를 선사하고 있다.
이날 선보일 '코지 판 투테'는 우리나라 말로

'여자는 다 그래'라는 뜻이며 연인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친구의 약혼녀를 서로 유혹하는 내용이다. 남녀의 미묘한 심리를 다룬 작품으로 19세기 당시 주제가 가볍고 사건 전개가 장난스럽다는 이유로 혹평을 받기도 했다.
빛소리오페라단 최덕식 단장이 총감독을 맡았고, 박미애 광주대 교수가 연출과 지휘로 참여한 다. 휘오르딜리지 역에는 소프라노 장희정이 출연하고, 도라벨라는 소프라노 장은영이 연기한다. 웨란도는 테너 장호영이, 콜리엘모는 바리톤 김중우가 각각 맡았다. 이외에도 소프라노 박정연, 바리톤 김일동, 피아노 천현주, 엘렉트 장희경 등이 무대에 오른다. 무료관람. 문의 062-227-7440. /전은재 기자 ej621@

'민선7기 남은 1년, 문화정책 어디로' 포럼

문화도시협·상상실현네트워크
'민선7기 남은 1년, 문화정책 어디로 가야하냐'를 주제로 포럼이 열린다. 광주문화도시협회의 회(상임대표 박병주), 상상실현네트워크(공동대표 정두용)는 오는 24일 오후 4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7층 강당에서 포럼을 연다.
지역의 20여개 시민문화예술단체와 청년문화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광주시의 5대 '함께' 문화비전 20대 정책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실천 방안 논의를 비롯한 정책과 사업반영을

위한 공론의 장이다.
한신 호남대학교 교수 사회로 진행되는 포럼은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이 주제 발표를 한다.
또한 문화 현장의 종사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염수경 광주전남문화유산 공동대표, 김중필 광주문도협 협동 사무국장, 정진삼 광주장애인문화협회 회장, 이강필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사무처장, 정두용 청년문화허브 대표, 박호재 전 광주문화재단 정책실장이 참여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상으로 만나는 연극 '여자만세'

29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고지식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 서희는 하루하루가 편한 날이 없다. 어느 날 70대 할머니가 하숙생으로 들어온다. 할머니는 시댁 식구들에게 시달림을 받는 서희를 위해 위로를 한다.
화면으로 공연을 즐기는 '작은스크린' 공연으로 연극 '여자만세'가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상영된다. 이번 작품은 국민성 작가와 장경섭 연출이 2018년 대학로에서 초연해 호평을 받았다. 수상하면서

아찔한 3개월간의 동거를 다룬 좌중우돌 코미디에 관객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상영시간 100분.
방역지침에 따라 선착순 50명으로 관람 인원을 제한하며 입장료 무료. 예약은 전화(062-670-7933)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작은 스크린은 7월 '춤말하다' (무용), 8월 '스냅' (년버벌), 9월 '정크,클라운' (년버벌), 10월 '지젤' (발레), 11월 노부스 콰르텟(음악) 등을 선보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주간-작가스테이지' 프로그램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는 2021년 '문학주간-작가스테이지'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문인들의 활동 지원과 문학의 가치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문학주간-작가스테이지'는 작가가 직접 기획하고 출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자유주제방식'과 '주제지정방식'으로 나눠 2차례 공모를 진행한다.
먼저 '자유주제방식'은 1차 공모를 오는 7월7

일까지 진행하며 2차 공모 '주제지정방식'은 오는 8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진행한다. 2차에 걸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스테이지' 프로그램은 9월부터 12월까지 총 4개월 간 문학주간에 만나볼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작가스테이지' 프로그램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문학분야 작가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손해보험협회